

한미훈련 축소에 老兵은 분노한다

최명상 (예 준장, 공사 15기 전 공군대학 총장, 소르본대 국제정치학 박사)



중국과 북한의 반대로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됐다. 김영정은 그마저 비난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한다. 국론 분열과 한·미 이간책에 정부 대처가 불안하다. 목숨 걸고 영공 방위에 헌신한 노병(老兵)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첫째, 국민에게 호소한다.

국제질서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조선의 멸망, 한반도 분단, 6·25전쟁 모두 국제질서 변화에 대비하지 못해 생겨난 비극이다. 동맹국이 없어 생긴 불행이다. 영국의 아편전쟁 승리 이후 영국 해양세력과 러시아 대륙세력의 패권경쟁에서 일본은 영일동맹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이에 대비하지 못한 조선은 멸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의 냉전 체제에서 한반도가 분단되고 6·25전쟁을 겪었다. 미·중의 패권경쟁이 노골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온 국민이 대비해야 한다.

둘째, 중국 시진핑과 북한 김정은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 상호방위조약, 즉 한미동맹이다. 양국 장병들의 피땀 어린 연합훈련 덕분이다. 그 훈련을 중단하라는 중국의 요구는 내정간섭이다. 시진핑에게 경고한다. 지난 100년 중국이 겪은 패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경제대국답게 국제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중·러 연합훈련을 과시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반대는 궤변이다. 김정은에게도 경고한다. 핵보유국으로 제재만 풀어 보려는 사기극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통일전선전략이나 국공합작을 흉내 내어 남한 공산화를 꿈꾸지만, 자

유를 누리며 살아온 한국민에게 어렵없는 수작이다. 베트남·쿠바처럼 개혁·개방이 살길임을 충고한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우리가 살길은 한미 동맹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모호한 줄타기 외교는 위험하다. 핵 인질로 굴종을 강요하는 북한 음모에 속아선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으로 승리한 적은 없다. 판문점 도끼 만행에 미국의 원산 원폭 위협과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보복 의지가 김일성이 사과하게 했다.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전술핵 재배치를 합의하고 나토 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 극비리에 사드를 추가 배치해 완벽한 방공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미 전작권 전환을 유예하고 연합훈련을 팀스피리트 같은 대규모로 부활해 김정은을 겁박해야 한다. 한·미 핵 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끝으로, 후배 장군들에게 충고한다.

잇단 군 기강 문란의 근본 원인은 좌파정권 이래 주적(主敵) 개념이 호도되고 장병들의 안보관이 무력해진 탓이다. 강장(強將) 밑에 약졸은 없다. 평소 땀을 많이 흘려야 전시 피를 덜 흘린다. 훈련 없는 군대는 존재 가치가 없다. 청와대 눈치보지 말고 적이 겁내도록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연합 북핵선제타격전략사령부를 창설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권 아니라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다. 세계 질서 변화에 무지했고 부패하고 무능했던 역사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노병의 우국충정(憂國衷情)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기원한다.//

걸 모르고 장기군을 주둔시킨건 아니었을 것이다. 미국이 패한 결정적 이유는 국내정치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미군주둔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게 정치권의 발목을 잡았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반드시 적을 격퇴시키라는 여론이 없는한 첨단무기 사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이런 상황은 아프가니스탄 정부도 탈레반도 께뚱고 있었다. 패배의 주원인은 미국이 열심히 싸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패퇴한 뒤에 나온 변명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열심히 싸우지않으니 우리도 제대로 싸우지않았다는 것이다.

두번째 의문은 미국의 인도주의정신은 어디로갔는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인도주의다. 모든 제도와 정책이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시작한다. 인도주의는 인류가 유지해가야할 가장 소중한 가치다. 미국은 인권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파시스트국가들과 싸웠고 대부분 승리했다. 독재와 인권탄압을 피해 자기나라를 탈출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택한 곳도 미국이다. 국제무대에서 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앞장서서 이끌어온 것도 미국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선택하고 지지한 것은 바로 미국의 인간존중 가치때문이었다. 이번에 미국은 인본주의를 내던졌다.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인권도 내던졌지만 그동안 미국을 돕던 수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군인, 언론인, 적극협력자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들의 안전과 목숨을 생각했다면 먼저 이들을 탈출시키고 철군을 해야 했다. 이제 이들 협력자들은 탈레반 치하에서 대부분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을 믿고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보다 미국의 인도주의 가치관때문이었었는데 이제 이 가치관은 더이상 믿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도 냉정하게 미군을 철수시킨것 또한 미국의 국내정치 때문이다. 한명이라도 미군의 희생

을 줄이고 빨리 철수시키라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정치인들이 부응한 것이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등 군부에서는 미군을 일시 증강시켜 탈레반의 공세를 막고 미군협력자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자는 건의를 했지만 무산되었다. 마크 밀리는 2000년도 초에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고 장군진급 후에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사단을 지휘한 이 분야의 최고 군사전문가지만 정치인들의 장벽을 뚫을 수는 없었다. 이제는 전쟁의 승패도 가치관의 존폐도 모두 정치권에 달렸다.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만능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 예전에는 정치인이 대의명분을 세우고 국민을 설득했다. 지금은 모든 정치인들이 유권자에게 타협하고 굴복한다. 유권자의 뜻이 국민의 뜻이라고 하고 다수가 민의라고 한다.

과연 유권자가 국민전체를 대표하는가. 다수결은 합리적인가. 미국이 수많은 협력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갑자기 철군하는 걸 본 전세계인이 앞으로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주장하는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의심 없이 지지할 것인가.

인류의 지속가능을 생각하는 사람,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지역의 이해타산을 먼저 따지는 사람,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섞여있는게 유권자집단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산 미국이 정치에 흔들리고 있다. 정치가 모든걸 지배하는 세상이다. 군사 외교 경제 문화 언론 종교도 정치가 쥐고 흔든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철수도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치인에 달려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뽑힌 대통령과 그 세력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정말 잘 뽑아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미라클작전'의 성공, 강군의 쾌거

안재봉 (예 준장, 2사 5기, 연세대 ASTI 부원장)



국가의 목적은 생존과 번영, 국위선양 그리고 국제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으며, 국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이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내외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 주권, 영토를 수호하고 제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운용한 사례는 10여년 전 수행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들 수 있다. 2011년 1월 21일,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해운 소속 삼호주얼리호를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 구출한 작전이다. 대한민국의 해군특수전여단이 투입돼 약 5시간의 교전을 통해 해적들을 제압하고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군은 또 한 번 해외에서의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바로 '미라클작전'이다. 이번 작전은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도주의에 부합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세계 초일류군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합참의 작전 수행능력과 공군 작전요원들의 역량을 만방에 과시한 쾌거라고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8월 15일,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게 백기를 들었고 수도인 카불이 20년 만에 탈레반에 점령당하자 우리 정부는 아프간에 있는 대사관 등 우리 국민과 현지 조력자들을 안전하게 공수하기 위해 8월 23일 새벽 공군의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KC-330) 1대와 슈퍼허큘리스 수송기(C-130J) 2대를 이용해 긴급 공수작전을 전개했다.

3대의 항공기는 1만km를 비행해 카불공항과 인접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공항에 착륙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탈레반의 공격에 대응해 적의 대공미사일을 기만할 수 있는 플레어 등 방어 성능과 전술기동능력을 구비한 C-130J 수송기를 카불공항에 투입했다. 수송기 3대는 아프간 대사관 직원, 조력자와 그 자녀를 태우고 이슬라마바드공항을 이륙해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조력자들과 그 자녀들을 수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알려주는 교훈

윤은기 (예 중위, 학사 70기, 본회 정책자문위원)



엄청난 고통을 내며 이륙하던 군용기 바퀴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전날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을 이륙하는 미군수송기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뉴스로 본 탓이다. 미군이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날 카불공항은 한마디로 지옥같은 상황이었다. 이륙하는 군용기에 서로 매달리려고 뛰고 달리는 군중의 모습은 금세기 최악의 비극적 모습이다. 이 비행기를 타면 목숨을 건지지만 타지못하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이와중에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헬리콥터를 타고 국외로 탈출하였다.

6·25전쟁중 태어난 나는 평생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동맹인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았다. 전쟁중 안죽고 태어난 것도 미국 덕분이고 전후 어린시절 굶어 죽지않은 것도 미국의 원조물자 덕분이었

다. 그러나 내가 평생동안 미국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인간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선도국가이기 때문이다.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있는한 인류도 대한민국도 안전할 거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허겁지겁 철수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평생꾸어온 꿈이 산산조각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말이 철수이지 명백한 패퇴의 모습이다.

우선 두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하나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세계최강 미군은 왜 패배했을까였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인도주의 가치관은 어디로 갔을까였다. 아프가니스탄 패배를 철수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변명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나라를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엄청난 변명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자기 바뀐 것은 없다. 그들 정부는 오래전부터 부패했고 무능했고 군은 허약했다. 탈레반은 여전히 질겼고 지독했다. 어느 나라 보다도 정보력이 뛰어난 미국이 이

송해 공항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켜준 주아 프간대사관과 신원 확인과 공항 진입 시 현지 미군의 도움도 컸지만 무엇보다 공군 조종사와 공정통제사 등 최정예 작전요원들의 전문성과 강한 정신력이 빛을 발했다. 공군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정확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은 물론 이번 '미라클작전'과 같이 공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악기상 상황에서의 계기비행, 단거리 이·착륙 훈련, 비상 활주로 접근 훈련 등 다양한 비행 훈련을 해왔다. 또한 국경을 초

월한 해외 항법 훈련과 다국적 연합 공군 훈련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와 '콤포드' 등 해외 연합 공수 훈련을 통해 긴급 해외 공수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번 작전의 성공 요인은 평상시 강한 훈련을 통해 축적한 작전요원들의 경험과 공군의 핵심 가치인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로 다져진 강한 정신력의 승리라 생각한다. 이번 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최근 침체된 공군의 사기가 증진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거품을 물고 일어섰다.

통일의 길 멈춰서버린 7번국도의 끝에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세워진 전망대 흐릿한 망원경 안에 비춰진 북한군 초소 병

사들의 느릿느릿한 움직임은 뒤로 하고, 통일의 7번국도가 동해안을 따라 계속 북으로 이어질 날을 기원하며 무거운 발길을 돌렸다.//

7번 국도

김완용 (예 준위, 준사관58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



삼년 전 내 칠순 기념으로 서유립을 다녀온 후 다음 해에 서유립을 주선했던 여행사의 권유로 동유립을 가게 되었다. 그때 진담 반석인 농담으로 아내에게 미리 가는 당신의 칠순기념여행이라고 말했다.

그 후 공교롭게도 말이 씨가 되었는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외국 여행길이 모두 막혔다. 그래도 아내의 칠순인 금년에 가만히 집에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며칠을 고민 끝에 코로나 방역조건을 잘 지키며 국내 어디라도 다녀와야 할 것 같았다. 언제나 가 봐도 다시 가고 싶었던 곳, 작은 포구들이 출어를 기다리는 어촌마을을 품고 있는 동해안의 7번 국도를 달려 분단 조국의 최북단 통일전망대까지 3박 4일의 휴가계획을 세우고 생일 날에 맞춰 대전 집을 나섰다.

우리를 태운 승용차가 동서로 놓인 고속도로를 달려 경복 영덕으로 향했다. 5월의 바람은 차창을 빗겨 뒤로 달렸고, 길옆에는 연둣빛 물감을 먹고 자란 나뭇잎들이 검푸른 손을 흔들며 우리 부부를 반겨주었다.

우리의 계획은 대전을 출발하여 경북 영덕에서 점심을 먹고, 7번국도를 따라가다 정동진 바닷가 거대한 배 모양의 썬크루즈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출세한 고향 친구에게 빌린 고성 대진의 콘도에서 2박 하며 설악산과 통일전망대를 돌아볼 계획이었다.

영덕 강구항에 도착한 시간이 조금 이른 점심시간이었으나, 대계식당으로 가는 길은 호객을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손짓을 하였다.

호객행위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대계로 소문난 곳에 왔으니 품위 있게 점심 한 끼는 먹어야 했다. 1마리에 15만 원씩 하는 값비싼 영덕계로 점심을 마친 우리는 북으로 난 길로 들어섰다.

7번국도의 매력은 산모퉁이를 휘돌아 가는 바다와 포구의 어울림이 빚어내는 풍경이 일품인데, 세월이 흐른 탓인지 이제 그 옛날길이 아니었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가시는 고속화로 반듯하게 뚫은 길만을 고집하였고, 옛날같이 어촌마을을 경유하며 가던 길은 모두 사라진 도로에 군데군데 마을로 가는 교차로만 있을 뿐이었다. 지나가는 길목의 명승지를 구경하려면 여간 신경을 쓰는 일이 아니다.

햇살이 길게 늘는 오후, 삼척의 19금인 해신당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해신당은 어촌마을의 제단이기도 하지만 특유한

공원조성에 7번국도를 여행할 때마다 돌아보는 곳이기도 하다.

남근숭배의 민속을 주제로 조성된 테마공원, 보기에도 민망한 거대한 남근 조각들이 수없이 높고 서있는 공원을 오르는 길에 부끄럼을 잊은 한 그룹의 여인네들이 깔깔거리며 거대한 남근 위에 척 걸터앉아 사진들을 찍고 있었다.

덕배라는 총각과 애랑이라는 처녀가 살았다는 어촌마을 전설 속의 이야기가 담긴 해신당에는 애랑의 초상화가 동해의 푸른 물결 위로 쓸쓸한 바람을 날리며 을씨년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덕배라는 총각과 애랑이라는 처녀가 살았다는 어촌마을 전설 속의 이야기가 담긴 해신당에는 애랑의 초상화가 동해의 푸른 물결 위로 쓸쓸한 바람을 날리며 을씨년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해신당의 전설은 미역을 따러 바다에 간 덕배라는 총각과 애랑이라는 처녀의 이야기로, 덕배가 미역을 따는 애랑을 미역이 많이 붙은 바위에 두고 마을에 온 사이 갑자기 불어온 풍랑으로 애랑이 죽고, 그 후 어촌마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 먹고살기가 어려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애랑의 원혼 때문이라고 믿고 죽은 애랑을 달래기 위해 해마다 나무로 남근을 깎아 만들어 놓고 풍어제를 지냈다는 설이 있다.

이제는 동해안의 명소가 된 해신당은 오늘도 동해 먼 바다를 향해 앉아 가난한 어촌마을의 풍어를 약속이나 하듯 넘실대는 푸른 물결을 굽어보고 있었다.

심란하게 불어오는 봄바람에 동해의 물결은 일어서고, 정동진이 가까워지자 옛 해안도로가 조금 남아 있는 구간이 넘치는 파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우리부부도 역광으로 비틀거리는 햇살이 해안으로 늘는 시간을 따라 수 백리를 달려온 피로가 정동진 모래시계탑 밑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코로나19의 시절에도 예약이 어려웠던 썬크루즈호텔, 외형이 화려한 호텔만큼 룸은 다른 호텔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일기가 좋지 않아 해돋이를 보지 못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북으로 달렸다. 강릉과 주문진을 지나 양양의 38선 망향휴게소에 들려 강대국들에 의해서 분단의 아픔이 시작된 경계 38선 표지석을 어루만지며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느꼈다. 휴게소 마트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에 슬픈 역사를 담아 마시고 다시 달려간 곳은 동쪽상잔의 6·25전쟁 후 휴전협정에 의해 다시 그어진 155마일 휴전선의 끝자락 남한의 최북단 통일전망대이었다. 매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실랑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제를 올리는 망향대에서 바라보는 북한 땅은 하얀 망초꽃 흐드러지게 핀 비무장지대를 건너 멀리 금강산 자락이 보이고, 녹슨 철조망 너머로 분단 70년을 넘긴 지금도 해금강의 파도는 예전과 같이 실랑민을 손짓하며 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s no Free Lunch)

전대길 (병 176기, (주)동양EMS 대표이사, 수필가,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미국 서부 개척시대 이야기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다.

어느 날부터 가게의 손님이 점차 줄어들어서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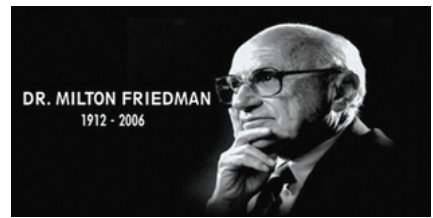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손님을 모을 수 있을까?" 가게 주인은 오랜 고민 끝에 손님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다음 날, 가게 앞에는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는 내일 낮에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그러자 손님들이 구름처럼 식당으로 몰려들었다. 공짜 점심을 먹는 사람들이 "가게가 망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다. 가게 주인은 다음날 점심식사 비용을 포함해서 술값을 조금씩 올려서 받았기 때문에 손님들의 다음 날 점심식사 비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손님들은 "점심 식사를 공짜로 먹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심지어 술만 마시고 다음 날 점심을 먹으러 오지 않는 일부 손님들도 있었다.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미국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박사는 이런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Free Lunch)"란 명언(名言)을 남겼다.

공짜와 관련한 옛 이야기를 적는다. 옛날 어떤 왕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아서 왕이 신하를 불러 문제 해결방법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신하들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한 보고서가 수십 권이나 되었다. 신하들은 이것을 왕께 올리면 왕이 다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 왕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왕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좀 더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하라고 다시 명령했다. 그래서 신하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책 한 권을 종이 한 장 분량으로 요약해서 왕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왕은 그것마저도 복잡하다고 다시 만들어 오라고 명령했다. 신하들은 또 다시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8글자로 줄여서 왕께 보고했다. 그 내용인 즉 "세상에 공짜는 없다"였다.

한국은행 통계(2021년 1/4분기 추정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 빚이 860조원, 민간 가게 빚이 2,045조원, 기업의 빚이 2,181조원으로 모두 합치면 5,086조원이다.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갚을지 국민에게 알린 적이 없다. 그런데도 최근 여야(與野)가 또 다시 코로나19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이라면서 전 국민에게 공짜로 돈을 주었다.

기성세대가 진 엄청난 빚을 우리 손자, 손녀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갚아야 한다. 우리 후손들에게 재산(財産)은 물려주지 못할지언정 태산(泰山)같은 빚을 물려주지는 말아야 한다.

내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남에게 진 빚이다, 절대 빚을 지지 말고 살아가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쳤다. 우리 모두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공짜란 환각(幻覺)상태에서 한 시 바빠 깨어나야 한다.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 국민에게 공짜로 돈을 주겠다고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은 국민투표에서 이를 부결시켰다. 이런 사례를 참작(參酌)하면 좋겠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真理)다.//

내가 살아보니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안호원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칼럼니스트, 시인, 향군목사)



새해가 시작되지 엿그제 같았는데 벌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팔월 한가위만 같아라'던 팔월 추석도 지나갔다.

문득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뜻의 고사 성어

무왕불복(無往不復)이 생각났다.

인생사에는 이런저런 굴곡이 있게 마련이고, 남에게 끼친 선행(善行)이나 악행(惡行)은 꼭 돌아온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르기만 하고, 기울어지지 않는 것은 없고,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無平不陂 無往不復)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바름을 지킨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니

근심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게 되어 먹을 복이 있게 된다.' 주역 지천 태에 나오는 말이다.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는 옛말이 있었다. 과연 그럴까.

얼마 전 우연히 한 사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절 기슭 연못에 불교를 상징하기도 하는 장연하게 핀 연꽃을 보았다. 연못 주위엔 그늘이 없어 햇살이 강하게 비쳤다. 아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연꽃을 보고 있으니 초연해지는 마음이 된다.

스님 한분이 내게로 와서 말을 건넸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멀리서 보니 오랜 시간을 연꽃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수려한 연잎에 맺힌 맑은 물방울을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스님은 다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시간을 들여 가만히 들여다보고 마음을 열고 노력해야 은은하게 또 잔잔히, 맑은 내음을 전해오는 것이 연꽃 향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잠깐 멈춰서 어떻게 해야 나(自我)라는 사람의 향기를 연꽃처럼 맑고 향기롭게 피어낼 수 있을지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덧 스님도 내 곁을 떠났다. 또 혼자 가 되었다. 생각해보면 자연만물에 꽃처럼 사람 마음을 은근하게 움직이는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꽃은 우리 인간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다. 특히 진흙탕 속에서 피는 연꽃은 그 가르침이 더 더욱 깊다.

다른 꽃들도 그렇지만, 연꽃은 아낌없이 주고 간다. 진흙 속에서도 우아하게 품위를 지키며 피는 연꽃은 맑은 마음을 가르쳐주고, 특히 한 잎에 꽃 두 송이가 핀다하여 금실 좋은 부부를 상징하기도 하는 연꽃. 보시(報施)하는 마음에서일까 연꽃은 잃은 물론이지만 뿌리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를 다 내준다.

철학자나 된 양 숙연해진 마음으로 아직 뜨거운 햇살이 비추는 산길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려왔다.

문득 엉뚱한 생각을 했다. '먹기 위해 사는 가',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 것일까?'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선 듯 속 시원하게 정답을 말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어느 쪽일까? 어르신 한 분에게 "식사는 잘 하세요?"라고 물었는데 "입맛이 없다"며 "이 나이에 무슨 밥맛이 나겠는가. 그저 죽지 않으려고 억지로 먹는 게지." 목숨이 붙어있으니, 죽을 수는 없으니, 입맛이 없어도 '죽지 않으려고 먹는다'는 것이다.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추석 무렵 한 독고노인의 가정을 방문했다. 혼자 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르신의 밥상은 외로운 감정조차 무뎠어져 버린 마음처럼 공허하기만 하다. 식사라기보다는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식이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언제였는지 가마득하며, 기억조차 희미하고 이제는 먹고 싶은 것도 없다고 했다.

오래 전 사별한 후 자식들과도 떨어져 살고 있다는 어르신은 혼자 식사 할 때, 특히 이런 명절이 되었을 때 가장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신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요즘 모두들 힘들게 사는 세상인데, 제 자식 챙기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내게까지 올 수 있겠

느냐"며 자식을 두둔한다. 입맛이 없어 먹기가 싫지만 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밥을 물에 말아 먹는다는 어르신. 부실한 식사를 바라보는 내게 "괜찮아요. 이젠 이골이 났으니 아무렇지도 않아요."하며 웃으시는데, 마치 내 모습이 반사(反射)되듯 마음이 아픈 게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소와 사회봉사자들로부터 반찬 서비스를 받아 요즘엔 먹는 게 좀 나아졌다고 하신다.

밥에는 가족들의 따뜻함과 그리움 등 정서적인 느낌이 담겨있기도 하다. 밥맛이 있어야 그래도 사는 재미도 더 할 수 있을 텐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무척 가슴이 아프기만 하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물끄러미 쳐다보는 어르신 눈빛이 촉촉해보였다. 어르신의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무거운 마음으로 나를 억누른다.

장애인으로서는 불꽃같은 삶을 살다가 2009년 만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故 장영희 교수가 병상에서 쓴 마지막 저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한 구절이기도 한 "내가 살아보니까"가 생각한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인 줄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밟지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한 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평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질순에 나이면 웬만큼 살아 본거잖아? 이제 우리 나이면 무엇이 소중한고, 무엇이 허망한인지 구분할 줄 아는 나이. 진실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가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나이이다. 남은 시간동안 서로 서로 보듬어 안아주고, 마음 깊이 위로하며, 공감하고, 더불어 같이 지낼 수 있는 인간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알아가는 나이인 우리가 아닌가.

'뭘만 안으면 포용이지만 마음까지 안으면 포용이 된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다. 행복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다.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부터는 하루하루, 특별히 받은 '오늘'(today)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present)인 보너스(Bonus)를 받는 날이자 부활(rebirth)의 날이다.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처럼 등한시하는 '오늘'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우리 모두 따뜻한 겨울을 맞이했으면 한다.

비울 땀 아쉽고, 개일 땀 귀찮아지는 우산 같은 삶은 살지 말자. 소중한 것(大)을 위해서는 좋아하는 것(小)까지 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내가 살아보니 젊음을 이기는 화장품도 없고, 세월을 이기는 약(藥)도 없다.

중생(衆生)들을 위해 모든 것을 말없이 '보시'하는 연꽃. "세상 살기를 마치 허공과 같이, 물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살기를" 바란다는 '처세 간 여허공 여련 화 불착수' 염불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그렇다. 우리 잠시라도 남은 삶일랑 연꽃 같은 마음의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한다.//

새 역사(歷史)를 쓰는 아마존(Amazon)

황태인 (예 중위, 학사 70기, (주) 토브넷회장)



아마존(Amazon)은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가 1994년 7월 5일 미국 시애틀(Seattle) 한 차고(Garage)에서 창업했다.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해 신속한 무료 배송으로 온라인 쇼핑 기업으로 발전하여 현재 임직원이 130만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아마존이 의류, 보석, 식품 등 온라인 유통시장을 장악했다. 유통시장 장악에 이어 완구, 전자제품, 인공지능, 콘텐츠, 헬스케어 산업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인공지능(AI) 비서인 알렉사(Alexa)와 클라우드(Cloud)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빅테크(Big Tech)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 공룡기업이다.

아마존이 어떻게 이런 빠른 속도로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나를 이름에서 유래를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아마존'은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에서 발원하여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 이름이다. 나일강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아마존 강은 길이가 무려 6400km이다. 아마존의 어원은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여자무사(女戰士)들만으로 구성된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 여전사들은 활 쏘기에 능했다고 한다.

공룡 기업 아마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확장을 여전사처럼 하고 있다. 아마존은 세계1위 전자상거래업체로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물류 인프라 업체로 도약했다. 아마존의 구독서비스 '아마존프라임(Amazon Prime Membership)'은 2020년 미국 구독자 수가 1억 1800만 명으로 미국 인구(약 3억 3300만 명)의 35%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인프라를 앞세워 최근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으며 기업과 기업 간(B2B) 거래, 기업과 개인간(B2C) 거래를 가리지 않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아마존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관리하고 연결하는 '플랫폼'에 핵심을 두고 디지털 대전환기에 유통의 메가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헬스케어 구독서비스인 '헤일로'를 공식 출시해 이용자가 스마트 밴드형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있으면 인공지능(AI)이 체지방을 분석하고, 운동, 수면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마존의 자회사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통해 의료데이터 플랫폼인 '헬스레이크'를 출시했다. '헬스레이크'는 의료기관이나 바이오 기업 등이 각종 의료 데이터를 저장 분석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2020년 11월에는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웹사이트로 처방약을 주문 받아 배송해 주는 '아마존파머시(Amazon Pharmacy)'를 출시했다. 미국내18세 이상 '아마존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45개 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고령 소비자들이 가능한 한 비대면으로 필요한 약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 AI시스템인 '알렉사'에는 고령자 간병 지원 도구인 '케어허브'를 임베디드(탑재)해 서비스하고 있다.

아마존은 직원 전용 원격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출시해 2020년 2월에는 본사 사무

직만 대상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물류 담당자들까지 확대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아마존 직원이 130만 명에 달하는데 전용 원격 의료보험프로그램이 상용화돼 타 기업에도 팔기 시작하면 기존 의료보험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에는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다. 우선 파워포인트 발표를 기피한다. 파워포인트를 기반으로 하는 발표는 참신한 아이디어 대신 뛰어난 언변이 주요 변수가 돼 아마존의 혁신에 방해가 된다고 여긴다. 글(워드)로 요약된 아이디어만이 살아 남는다. 그래서 회의장에서는 메모지를 갖고 참석하며 스마트폰을 배제한다.

또 다른 문화는 제품이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절차에서 개발자 판단에 따라 순서대로 계획을 세워 개발한다. 제품을 개발할 때 고객의 효용성을 먼저 설계하는 방식으로 새로 기획된 아이디어가 실제 어떻게 구현될지를 첫 아이디어 회의에서 보여줘야 한다. 이는 '순서과괴'로 제품 개발 과정에서부터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은 시간과 돈만 낭비된다고 여겨 배제된다. 이런 효율과 실천을 추구하는 베이조스의 조직경영 시스템이 아마존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 하겠다.

창업자 베이조스는 어려서부터 특이했다. 그는 1982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팰머토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수석 졸업하며 졸업생 대표연설을 했다. 그때 18세 소년인 그는 "저는 인류가 우주를 지배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지구를 떠나면 지구를 거대한 국립공원으로 바꿀 것입니다"고 하며 우주탐험개발 꿈을 갖고 있었다. 베이조스가 아마존을 경영하면서 요구하는 혁신 정신이 있다. 우선 모든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라. 이는 1997년 아마존의 주주들에게 보낸 주주서한부터 우주 탐사 기업 블루오리진 경영에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베이조스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고객만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보고할 때 파워포인트나 슬라이드형 보고가 아닌 '최대 3페이지 글로 쓴 메모'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점은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진들에게 큰 결정에 집중하라고 요구한다.

그는 자잘한 결정 수백 개보다 큰 결정을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영진들에게 올바른(Right) 인재를 고용하라고 임버릇처럼 얘기하고 있다. 기업 성장과 성공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베이조스는 매일 아침 두려움 속에서 눈을 뜨라고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한다. 아마존의 핵심은 경쟁 집착이 아니라 고객 집착이다. 고객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다그치고 있다. 아마존의 오늘이 있게 해준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쟁자가 아닌 고객에 대한 강박적 집착이다. 고객들이 아마존의 충성고객이 되는 것은 우리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회사가 등장하기 직전까지라고 강조한다. 아마존의 기업 정신은 '데이 원(Day 1)'으로 귀결된다. 항상 창업 첫날의 마음가짐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아마존엔

이를 실천하기 위한 14가지 리더십 원칙 (최근 앤디 제시가 취임하며 이 원칙이 16가지로 늘었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객에 집착하라'는 것이다. 회사에 현재 이익이 없더라도 고객 충성이 개선된다면 그 프로젝트는 추진된다

베이조스는 어렸을 때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는 아마존 CEO에서 물러나 그가 2000년에 창업한 '블루오리진'에서 우주 탐사 사업에 열정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직원들에게 퇴임 계획을 밝히는 서한에서 "끊임없이 발명하세요.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게 보이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방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당부하며 그의 발명DNA를 거침없이 쏟아낸다. 1969년 7월 20일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Apollo) 11호가 최초 달에 착륙한 날을 기념하여 만52년이 되는 2021년 7월 20일에 그는 '블루오리진'이 민간인 승객을 태우고 첫 우주관광을 시작했다. 베이조스는 성공적 귀환 후 "미래 세대를 위해 우주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이번 우주 여행의 목적이었다고 자부했다. 현재 '블루오리진'에서는 로켓에 6인승 캡

슐을 탑재해 지구 저궤도에서 11분간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민간우주여행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베이조스는 27년 전 아마존 창립일인 2021년 7월 5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아마존의 CEO를 앤디 제시(Andy Jesse)에게 넘겨 주고 아마존 이사회 의장직만 수행한다. 제시는 1997년 입사하여 AWS(Amazon Web Service)를 개발하여 2006년에 첫 클라우드 제품을 출시한 인물이다.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보다 AWS를 빠르게 성장시켜 아마존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게 하고 아마존의 성장을 이끈 독보적인 인물이다. 조용한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는 베이조스와 대조적으로 제시는 적극적 외부 활동과 거침없는 언행으로 볼 때 아마존의 새 역사는 앞으로도 거침없어 보인다.

대한민국도 온오프라인 유통서비스에서 각종 규제가 하루 빨리 철폐돼 '가정에서 코로나19 백신 같은 예방 치료 주사도 맞고 온라인으로 혈압당뇨약을 처방 받는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공군 '미라클 작전'에 참가해 느낀 금지와 자부심

이태규(소령,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2021년도는 나에게 뜻깊은 한 해다.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조종사로서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 동명부대 진 교대, 코로나19 백신 수송, 해군 청해부대 복귀 임무였던 '오아시스 작전' 등 많은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중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을 국내로 이송한 '미라클 작전'은 무엇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해외 임무는 보통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다. 반복해서 검토하고 작전에 임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작전은 급박한 현지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부분을 검토하지도, 확정하지도 못한 채 진행됐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정보에 의지해 임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테러 위협이 높다는 현지 첩보에 모든 임무 요원은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작전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또 현지의 고온다습한 날씨,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감, 긴 대기 시간은 임무 요원들을 더욱 지치게 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 간의 비행을 위해 여러 방안이 검토됐다.

당시 카불 공항은 KC-330에 승객을 탑승시킬 계단이나 화물 적재용 장비 등의 여건이 부족했다. 다행히 C-130은 별도의 장비 없이 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었기에 C-130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전개해 임무를 수행하고, KC-330은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사정으로 비행 연기와 취소가 반복되다 8월 25일 새벽부터 요원들은 항공기를 점검하고 승객 탑승을 준비했다. 요원들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방역복을 착용한 채 탑승을 지원했고 전 승객이 탑승하는 데

만 다섯 시간 이상이 걸렸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낮은 곳으로 향하는 긴장감이 가득했음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은 긴 대기 시간에도 힘든 내색 없이 차분히 항공기에 올랐다.

특히 생후 20일 된 신생아가 엄마 품에 안겨 타는 것을 보면서 이 힘든 여정을 잘 견디고 있는 것이 대견했다.

KC-330으로 해외 작전을 수행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 과거보다 더 빨리, 더 멀리에서 해외 작전을 수행하는 걸 보며 국력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았다.

KC-330은 전시 공중급유 작전으로 압도적인 공중우세 달성에 기여하고, 평시에도 '미라클 작전'과 '오아시스 작전' 같은 해외 긴급 공수 임무를 수행하는 공중기동작전의 핵심 전력이다.

이번 '미라클 작전'을 계기로 공중기동전력의 필요성·중요성·효과를 다시금 인식하고, 이를 통해 어떤 해외 작전에도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작전체계를 다듬어 갖춰야 할 것이다.

KC-330 조종사로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 아쉽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

바로 제한된 전력이다. 주 임무인 공중급유 이외에도 병력·화물·환자 수송 등 국가 차원의 임무가 부여되고 있지만, 제한된 전력으로 인해 작전운영상 애로를 느낀다. 추가적인 전력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나는 이번 '미라클 작전' 수행 중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낮은 곳으로 향하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보며 가족의 가치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안전하지 못한 나라의 국민이 받는 고통을 절실히 알게 됐고,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군인으로서 보람을 느꼈다. 특별기여자와 가족이 한국에서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 본내용은 국방일보 2021.10. 7.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암흑의 13일간

채낙호 (예 준위, 준사관 28기, 광주지부 고문)



나는 어린 소년기에 북한 인민군에게 의용군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내 고향(황해도 연백군)에서 북쪽으로 약 230

리 떨어진 황해도 서흥군 서흥읍까지 간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굳은 의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고향으로 되돌아가야겠다는 일념으로 그곳 황해도 서흥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도중에 인민군에게 붙잡혀 환자들을 업고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어린 소년시절에 힘에 부쳤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 업고 가기 힘들 때는 내려놨다가 다시 갖지만 무척 힘들어였다.

또 한 가지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은 남한으로 내려오려면 꼭 거쳐야 하는 수천다리(나무 토막과 파란 모래주머니를 엮어 만들) 건너야만 하는데 나는 그때 잔피를 부렸다. 어떤 노인이 북한 이북으로 무리(탄환)를 소등에 엮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노인은 장거리에 지친 몸으로 고삐를 손에서 놓고 소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마치 내가 소 주인인 것처럼 소를 몰고 그 수천다리를 건넜다. 그런데 그만 소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빗물에 씻겨 떠내려가 소가 밟아 빠져 가까스로 다리를 꺼냈는데 그때 조바심 때문에 무척 당황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그런 그때 남한으로 내려와 어느 민가에 들러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허겁지겁 밥을 먹다 보니 목이 메어 애를 먹었던 것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니까 음식은 꼭꼭 씹어서 먹어야만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 지금 생각하니 지난날 옛 추억으로 기억이 떠오른다.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가족들과 오순도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맛있게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통일이여, 빨리 오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계곡에도 사랑이

이윤우 (예 소령, 공사 6기생 회장, 한국항공기술협회 이사)

노을이
구름이 좋아
구름을 붉게 물 드리듯

구름이
산이 좋아
바위산 위에 머물 듯

산이
물이 좋아
쌍 폭포를 내리듯

쌍 폭포
호수가 좋아
호수에 떨어지듯

호수
나무가 좋아
푸른 나무
쳐다 보듯

